



4면

"하부도 민원, 행정실 제외하라"

전주매일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음 7월 22일) 제334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예산 복원”... 삭발 투쟁에 나선 전북도의원들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5일 오후 1시 30분경 도의회 청사앞에서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식을 가진 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 정치공세 도 넘어 SOC 예산 삭감에 분노”

도의회, 정부 방침에 삭발·단식 투쟁 나서
“尹 공약 이행토록 새만금 예산 즉시 복원시켜야”

전북도의회가 5일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방침에 ‘삭발투쟁’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의원 14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도의회 청사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에 참여한 의원은 이정린 부의장과 김만기 부의장을 비롯해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 염영선 대변인, 임승식 의원, 황영석 의원, 박용근 의원, 김동구 의원, 윤수봉 의원, 한정수 의원, 장연국 의원, 진형석 의원 등이다.
삭발식에서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78% 삭감은 상식적 다”며 “이번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 투쟁에 나선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를 향한 짬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예산을 살려 내라”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을 향해 있는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고 새만금 예산을 즉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들은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염영선 대변인 등을 중심으로 단식 투쟁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日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시 중단하라”

전북도, 댐 주변지역 지원 하류지역까지 확대 건의

전북도는 ‘댐건설관리법’ 상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지원혜택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윤정훈 의원(무주군, 환경복지위원회)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한 내용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지원을 받던 상류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 하류지역에 지원하도록 건의했다.

댐 하류 주민들은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댐 방류로 입은 피해를 입었고, 하류지역 5개 시·군 2,288명이 신청한 828억원에 대한 환경분쟁조정 결과 38%인 319억원만 배상했다.
환경부는 하류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범위 설정,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지역까지 확대는 장기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나인권 도의원 발의 촉구 결의안 채택
우리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도

전북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즉각적인 투기 중단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을 비롯한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직후 중국은 성명을 통해 일본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홍콩은 이미 일본 10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추가 금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홍콩은 이미 일본 10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추가 금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무책임한 행태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나 의원은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는 5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한 가운데 앞으로 30년간 저장탱크 1,046기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 톤을 방류할 계획”이라며 “이는 단순히 후쿠시마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해양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어업인

오늘 대입 수능 9월 모의평가

도내 고3 재학생·졸업생 1만7277명 응시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도 동시에 치러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6일 도내 112개 고등학교 및 15개 학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치른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 올해 수능시험의 난이도 및 출제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전국단위 시험이다.

9월 모의평가에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 1만5,453명과 졸업생 1,824명 등 총 1만7,277명이 응시한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한국사 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정은성 기자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오는 10월 5일부터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치러진다. 이번 평가에는 도내 106개 고등학교 1학년 1만5,978명과 2학년 1만 6,959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9월 모의평가는 정부의 길러문항 배제 발표 후 시행되는 마지막 모의평가”라면서 “2024학년도 수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수능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학습 전략의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2023. 9. 14. (목) - 9. 17. (일) | 4일간

장수군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

주최 장수군 | 주관 사)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북도